



# 기술 개발 바탕 세계시장 약진

## 장인정신 외길 30년 결실



◀ 오원석 동성화학공업(주) 대표이사

하나의 기업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서 일하는 소속원들이 어떤 목표와 추진력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지난 1973년 압출티다이스 공법 개발을 계기로 동양비니루공업사는 염화비닐시트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1982년 동양바이닐공업사, 1987년 법인전환하기 까지 올곧은 한 길만을 택해 뼈대를 갖추어 온 동성화학공업(주)이 살을 붙이는 제2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경영모토를 갖고 있는 동성화학의 성장에는 개발이라는 남다른 노력이 깃들여져 있다.

1985년 일본 구라레이사의 기술지도로 하이베

리어 다층시트 개발, 1986년 PS필름 개발, ECO-P 시트 포장성공사례 우수포장선정, 1994년 PLS시트, CPS시트 생산, 1995년 SPS시트, 1996년 '계란포장용기 및 그 제조방법', '다층구조를 갖는 성형용 합성수지시트', '고선명도 인쇄를 위한 합성수지시트 및 그 제조방법' 특허 취득, 1998년 '기초 합성수지시트와 인쇄된 필름을 접착하기 위한 장치와 그 접착방법' 특허 취득, 1999년 '일회용기' 의장등록, '폴리스틸렌 공압출시트 및 이를 이용한 식품포장용기' 특허 취득, OPS시트 생산 등 동성화학의 노력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동성의 성장에는 개발과 함께한다. 처음 호상요구르트의 SPS시트의 전량수입을 해결하는 국산화를 이루어 기업이 태동하였으며, 선물세트용 ECO-P의 개발로 매출이 증가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PVC수축필름의 규제와 맞물려 신제품인 OPS의 수출물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제 PET시트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동성이 이렇게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엔지니어 출신인 오원석 사장이 경영목표를 제품개발에 두고 운영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영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보다 성장이 늦지만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내실성장을 강조하고 모든 운영에서 거품을 빼다보니 지난 98년 IMF가 닥쳤을 때와 최근까지 지속되는 주변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외풍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속도가 빨라지는 기현상을 누리고 있다.

지난 98, 99년 급성장을 계기로 올해는 3백50억원, 3년내 500억원 매출목표를 잡아놓고 있다. 이는 내수보다는 수출로 비중을 높이는 공격적인 경영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현재 22%대의 수출 비중을 3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겉보기만 화려한 다른 기업들이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버리는 현실과 비교하면 이 기업이 얼마나 내실이 있는가 보여주는 것이다.

가끔 오원석 사장은 “상장시 일반인들이 동성을 평가하는 가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게 할 것이냐 결국 내재가치가 중요하지 않느냐”며 “동성은 내실을 다지고 외형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기는 비용과 기술 등 어느 하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내와 성실성이 밑알이 되어 시장을 형성하고 여기에는 기본에 충실한 품질과 저가의 경쟁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을 하기 위해 내수시장에서 품질검증을 마치고 자신감 있을 때 욕심내지 않고 적은 양부

터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히는 이재형 이사는 “철저하게 자사 품질이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가에 대한 주도면밀한 시장조사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0년대 초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 동성은 90년대 말 판매보다 투자에 역점을 두었고 경쟁상대를 일본으로 설정, 신제품 개발과 철저한 품질 관리로 지금까지 클레임을 한번도 겪지 않았다.

이는 오원석 사장이 ‘품질경쟁이 없되는 제품은 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지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90년들어 경영목표에 환경을 추가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PS, PP소재를 이용한 제품개발로 이어졌고 이는 매출증가로 이어졌다. 사회적 책임으로 출발한 환경에 대한 투자가 매출의 증가라는 이익을 가져다 준 선견 경영을 보여준 것이다.

비용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플라스틱과 환경을 조화롭게 연구한 것이 장기적으로 매출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재형 이사는 “환경에 대한 투자는 낭비가 아니고 투자를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것”이며 “동성은 앞으로도 환경과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라 말했다.

동성이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쪽 뺨은 포도만



▲ 동성화학공업 공장 전경



▲ 동성 생산제품

은 아니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해 놓으면 대기업이 자금력을 무기로 중소기업을 위축시키는 일들이 만연해 있는데 동성은 이를 성장의 자극제로 활용 대기업과의 경쟁에 나섰다.

돌이켜 보면 경쟁이 없었다면 온실 속에서 자라왔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내실이 다져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이루었고 위기감에서 비롯된 경쟁력이 업계에서 유일무이한 회사로 발전시켜온 공격적인 경영이 실효를 거둔 본보기이다.

물론 개발과 품질만으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시장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틈새시장을 침투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축적된 기술이

바탕이 되었다.

“중소기업이 일궈는 시장을 힘들이지 않고 빼앗겠다는 대기업들의 기업윤리가 바뀌었으면 한다”는 이 이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호 보완하고 시장을 키워가는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경영관에 일침을 가했다.

이 이사는 최근 정부가 플라스틱산업을 공해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하는 것은 포장산업이 창출하는 고부가가치를 모르는 정책입안자들의 오류라 지적했다.

포장산업에 플라스틱이 속해 있고 물류합리화를 하는 기본적인 포장을 단순히 환경 공해산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미래 전략적인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태도라 피력했다.

일례로 종이도 환경친화적이라 해서 일부 업체

(표) 동성 생산제품 용도

재질	용도	상품명	업체명
PS	· 과자 TRAY " "	· 그레이스 쿠키 외 · 엄마손 파이	크라온제과 롯데제과 한국야쿠르트
	· 라면뚜껑 " "	· 빅3 외 · 생생면 외 · 쟈안나 외	농심 롯데삼강 맥스전자 외 삼성전자
SPS	· 아이스크림 용기 · 전화기 TRAY · 휴대폰 TRAY	· 애니콜	한국야쿠르트 해태유업 남양유업 매일유업
	· 호상요쿠르트 " "	· 슈퍼 100 · 요러브 · 꼬모 · 바이오거트	동원산업 외 빙그레 롯데리아
CPS	· 김 TRAY · 아이스크림 용기 · 웨이크 용기 · 각종 투명 음료용컵	· 양반김 외 · 파르페	폴무원
PP	· 두부용기 · 단무지용기 · 마가린 용기 · 각종전자부품 TRAY		오뚜기 식품
FPP	· 선물세트 TRAY · 빙수용기	· 팔빙수	태평양/ LG화학/ 오뚜기 제일제당/ 부광산업 등 롯데
다층	· 어묵용기 · 젤리용기	· 제다젤리	삼호/ 대림/ 코주부 폴무원
PET	· 계란 TRAY · 딸기 TRAY · 빵 TRAY		사니케이/ 서울식품 외

들이 필프몰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결국 그 업체들 대부분이 도산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시각적인 정책 발상에서 벗어나 3차원적인 생각으로 산업을 퇴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신제품, 새로운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업계의 리더로 자부하는 동성화학은 유저들이 소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선진국형 포장으로 바꾸고 발전시키는데 일조하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업체들은 과당경쟁해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강한 자생력이 생긴다”며 “국내 업체들도 품질, 마케팅 등 국제적 시각을 갖아야 한다”고 이 이사는 소신을 밝혔다.

굴뚝산업이 중요하며 이를 발전시키려면 전문가를 키우고, R&D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동성의 모토처럼 고부가가치를 위한 선택적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

(鎮)